

청정무주 명성 매립장에서부터

황인홍 무주군수,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방문

황인홍 무주군수가 2일 적상면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침출수처리를 비롯한 선별, 매립, 전처리시설을 둘러보며 쓰레기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황 군수는 이 자리에서 "쓰레기 대국이라는 오명, 미세먼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지역, 남의 얘기가 아니다"며 "관련 부서

에서는 1회 용품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무주대청결 운동 등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또 이곳으로 들어온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6만4,444㎡ 규모로 조성된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35만6,000㎡ 규모의 매립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 위탁운영 중인 무주 진안 광역전처리시설을 통해 하루 가연성 쓰레기 40여 톤을 처리하고 고형연료 1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에 따르면 환경마인드 확산을 위해 올 초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재활용)와 침출수처리과정에 대한 교육과 해양 동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플라스틱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매립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쓰레기 반입 과정부터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자원 재활용시설에서 캔, 스티로폼, 전자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수거·처리과정 견학이 가능하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이형재 자원순환 팀장은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켜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보고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반딧불이의 고향 청정 무주의 명성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2일 적상면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진안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건 완화돼 17년, 18년 벼 재배농지도 신청 가능

진안군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생산량 조정과 타작물 식량지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시행 지침을 완화하여 신청 받고 있다.

당초 논 타작물 사업대상 농지는 2018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되었으나 20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와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에 등록된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2017년 벼 재배보험가입 증명이나 영농자재, 종자구입 확인서류 등 실 경작 여부를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휴경농지도 지원한다.

이 경우 상반기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무관하지만 이행점검 기간인 하반기(7월~10월)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진안군의 논 타작물 목표면적은 133ha로 4억522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사료작물 43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작물 325만원, 휴경 280만원 차등 지원된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배추·무·고추·대파는 사업대상 작물에서 제외된다. 또 전년도 사업 신청 시 다년생 작물 식재 후 올해도 그대로 다년생 작물을 신청하는 경우 다년생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신규작물을 식재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7월~11월 사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통하여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입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2개반 3명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이 '2018년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참 잘했어요"

2018년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 'A'

무주군은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이 '2018년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삼동회에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은 모든 항목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으며 2012년, 2015년, 2018년 3회 연속 최상위 등급인 'A'를 받았다.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노인복지관 246곳의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관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2015년부터 3년 간)을 심사(A~F까지 5등급 분류)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늘 초심을 되새기는 다짐과 실천을 통해 2021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오고 싶고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설립된 무주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상담을 비롯한 건강생활지원과 노년 사회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 군정 주요사업 현장 방문

장수군이 2019년 주요 공사현장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에 나섰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군민 편의증진, 생활 불편해소, 안전점검을 위해 주요사업 현장 43개소를 직접 방문해 공사현장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재해위험개선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군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장부터 ▲꽃묘 양묘장, ▲창년 일자리사업장, ▲농업인 소규모창업 시범사업장,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43개소를 점검한다.

현재 군수는 지난 달 2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산서면 능곡소하천 정비사업, 원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장계면 양삼 재해위험개선지

구 정비사업, 계북면 농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장계면 순환형 매립시설 공사, 천천면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장 등을 둘러봤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발생될 문제점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복지향상이라고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 점검은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중 발견된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당면영농 현장지도의 날 운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당면한 영농기술 현장지도에 나섰다.

기술센터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전 직원 현장지도의 날을 운영한다.

현장지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마을이나 작목별 현장, 선도농가 등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농 시기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군 농촌 지도사업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고추, 벼 등 기본적인 재배기술 뿐만 아니라 논 타작물 재배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정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필환 소장은 "현장지도는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으로 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중점관리대상 현장방문

무진장소방서(박덕규서장)는 2일부터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현장방문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행정은 재난발생 시 다수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덕유산주리조트·일성무주콘도미니엄 대상으로 현장점검지도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상태 확인 ▲특성에 맞는 인명대피·비상구 확인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중요성 강조했다.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자들에게 화재 예방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덕규 서장은 "모든 대상물 관계인들은 화재안전관리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평소 소방시설 유지 관리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이라며 "관계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